

K-POP 팬덤 활동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및 해결방안 연구

이름	정아랑	글쓰기 수업 분반	03
학번	20230330	글쓰기 담당 교수	박상경 교수님

K-POP 팬덤 활동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및 해결방안 연구

20230330 정아랑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K-POP 팬덤 활동의 의미와 영향력
 - 2.2 인권침해의 의미와 종류
 3. K-POP 아티스트의 인권침해 사례
 - 3.1 사생활의 자유 침해
 - 3.2 폭언 및 성희롱
 4. K-POP 팬덤의 인권침해 사례
 - 4.1 경호원의 폭행
 - 4.2 보안 명목의 성추행
 - 4.3 개인정보 침해
 5. 개선 방안
 - 5.1 아티스트 보호 방안
 - 5.2 팬덤 보호 방안
 6.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최근 K-POP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K-POP 문화와 이에 뒤따르는 팬덤 활동이 갖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티스트, 팬덤 양쪽 모두에 종종 인권침해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K-POP 팬덤 활동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기사화 등 이슈화가 되긴 커녕 오히려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있고, K-POP 문화가 갖는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인권침해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가시화되는 아티스트와 팬덤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망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건강한 K-POP 문화로 나아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K-POP 팬덤 활동에 대한 종류와 특징

을 알아볼 것이다. 그 뒤 각 사례별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의 특성을 파악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 제시할 것이다. 팬덤 활동에 대해서는 주로 논문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알아볼 것이며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보도 기사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률 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K-POP 팬덤 활동의 의미와 영향력

K-POP은 'Korean Pop, Korean Popular Music'을 의미하며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한국의 음악 장르를, 그리고 현재는 주로 한국의 아이돌의 음악을 뜻한다.¹⁾ 그리고 팬덤, 즉 Fandom은 자발적인 열정으로 선호하는 대상의 정보를 모으고 열광적으로 애정을 표시하며 본인의 취향을 적극적이고 추구하는 집단을 뜻한다.²⁾ 따라서 K-POP 팬덤이란 한 마디로 자발적으로 한국의 음악과 아이돌 등 가수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집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K-POP 팬덤이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활동을 팬덤 활동이라고 정의했으며, 크게 오프라인 팬덤 활동과 온라인 팬덤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오프라인 팬덤 활동에는 공연 관람, 음악방송 방청, 대면 팬 사인회 등의 아티스트를 직접 보러 가는 활동과 앨범 및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팝업스토어에 방문하는 것, 팬덤이 주최한 생일 이벤트 카페에 방문하는 것 등의 아티스트를 직접 보러 가지 않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팬덤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화되며 팬덤 또한 온라인 미디어를 사용해 아티스트 관련 문화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³⁾ 이러한 온라인 팬덤 활동은 주로 팬덤 내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아티스트와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 아티스트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아티스트와의 온라인 소통에는 비대면 영상통화 팬 사인회와 유료 소통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여기서 유료 소통 어플리케이션이란, 구독료를 내면 개인 메세지 방에서 사적으로 아티스트가 직접 쓴 메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다.⁴⁾

이러한 팬덤 활동은 다음과 같은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첫째로는 케이팝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다.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가진 브랜드에 사랑을 주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팬의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는 시장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브랜드 로열티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⁵⁾ 또한 팬덤은 스트리밍 리스트를 만들어 음원 차트에서 아티스트의 곡이 순위권에 들도록 하거나 시상식 투표를 위한 어플 등을 만들어 수익을 직접 이뤄내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 실제로 BTS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⁶⁾ 이처럼 팬덤 활동이 가진 강력한 지지와 사랑이라

1) 정지은(2019), 「케이팝(K-POP)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9-3, 한국문화산업학회, 64쪽.

2) Fiske, J.(1992),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In Lewis, L. A.(eds),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London and N. Y.: Routledg, 이윤경 외 2명 (2022), 『콘텐츠산업 팬덤 기반 지형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쪽, 재인용.

3) 김현지·박동숙(2004), 「온라인 팬덤: 접근성의 강화에 따른 팬들의 즐기기 방식」, 『미디어, 젠더 & 문화』,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42쪽.

4) 김연우(2022. 7. 14.), 「돈 내고 소통하는 시대, 아이돌 '유료소통' 앱 부작용 크다」, 시빅뉴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5> (2023. 12. 13.).

5) 여수경·정미선(2019), 「방탄소년단 팬덤의 복합 영향력 분석을 통해 브랜드 활성화 방법 연구」, 『한국과학예술통합학회』, 37-3,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306쪽.

는 특성은 곧 케이팝 산업의 경제적 성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팬 개인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다. 중국의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팬덤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결국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⁷⁾ 또한 2021년 전국의 만 16세~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7%가 팬덤 활동을 경험했으며, 팬덤 활동시 즐거움과 만족스러움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⁸⁾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어떤 팬은 무기력해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⁹⁾ 이처럼 팬덤 활동은 이를 경험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인권침해의 의미와 종류

팬덤 활동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다루기 전, 해당 사례들이 정말 인권침해 행위인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및 성추행, 개인정보 침해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인권침해임을 증명할 수 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¹⁰⁾ 사생활의 자유 침해는 인권침해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¹¹⁾ 폭행과 성추행도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성희롱 행위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인권침해임을 알 수 있다.¹²⁾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¹³⁾, 폭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6) 이윤경 외 2명(2022), 앞의 책, 16쪽.

7) 이장근 외 2명(2020), 「중국 여중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팬덤 활동의 매개 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27-특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86쪽.

8) 마크로밀엠브레인(2021), 「2021 팬덤 문화 및 BTS 정치사회적 영향력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주)마크로밀엠브레인, 6~7쪽.

9) Mnet K-POP(2023. 4. 20.), <최종회> '우리가 여깁잖아' 연습생들을 위한 글로벌 깜짝 선물 등장?! | Mnet 230420 방송 [EN/JP], YouTube Mnet K-POP 채널, <https://youtu.be/743Wg5RQJKc?si=LgHCB4sEviqxUcS8> (2023. 12. 13.).

10)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2023. 12. 14.).

1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2023. 12. 14.).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C%9D%B8%EA%B6%8C%EC%9C%84%EC%9B%90%ED%9A%8C%EB%B2%95#undefined> (2023. 12. 14.).

13)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2023. 12. 14.).

침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즉 인권 보호가 목적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¹⁴⁾ 개인정보 침해 또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로 본 연구에서 다룰 사례들이 인권침해 행위를 알 수 있다.

3. K-POP 아티스트의 인권침해 사례

(1) 사생활의 자유 침해

아티스트는 공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종종 사생활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크게 팬이 숙소를 배회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직접 아티스트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와 그 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팬이 SNS에 유포하여 아티스트가 피해를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팬이 직접 아티스트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NCT의 멤버 재현이 팬으로부터 호텔 방 침입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례인데, 기사에 따르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현이 머물렀던 호텔 방 내부가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고 하며 이는 팬이 호텔 키를 이용해 침입한 뒤 아티스트의 의상과 물건 등을 공개한 것이라고 한다.¹⁵⁾ 또한 한 여성이 최근 BTS의 멤버 뷁의 자택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말을 거는 등의 행위로 불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¹⁶⁾ 이처럼 숙소나 호텔 등 아티스트가 머무르는 공간을 배회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아티스트에게 아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이 외에도 연락처를 알아내서 라이브 도중 전화를 걸어 해당 연락처가 아티스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또한 아티스트와의 연락이 목적이므로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팬이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SNS에 유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최근 아이돌 그룹 라이즈의 멤버 승한이 한 여성과 침대에 누워서 스킨십을 나누는 사진,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영상,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영상 등이 SNS에 유포되며 비판이 커졌고 결국 해당 멤버는 활동을 중단했다.¹⁷⁾ 또한 2019년에 솔로가수 송유빈과 김소희가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SNS에 유포되며 사생활이 침해되기도 했다.¹⁸⁾ 이와 같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등의 정보가 한번 SNS에 유포되면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 성적인 사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촬영 범죄로도 볼 수 있는 큰 문제이다.

(2) 폭언 및 성희롱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undefined> (2023. 12. 14.).

15) 김현록(2023. 11. 27.), 「피 보는 지경까지...‘불쾌’ 넘은 ‘공포’의 사생활 범죄 “경각심 최고조”[이슈 S]», 스포티비뉴스,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823> (2023. 12. 14.).

16) 여동준(2023. 11. 17.), 「경찰, BTS 뷁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1117_0002524939 (2023. 12. 14.).

17) 강경운(2023. 11. 22.), 「라이즈 승한, 사생활 논란→활동 중단...SM 측, 오늘(22일) 고소장 제출», sbs연예뉴스,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80319 (2023. 12. 14.).

18) 이소담(2019. 8. 24.), 「키스 사진 유포된 ★들..지나친 팬심? 사생활 침해는 범죄입니다(종합)[Oh! 쎬 이슈]», osen, <http://www.osen.co.kr/article/G1111211078> (2023. 12. 14.).

아티스트는 팬에게서 폭언을 듣고 성희롱을 당하는 등의 수모를 겪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팬 사인회, 라이브 방송 등 아티스트와 팬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며 팬과 아티스트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울 때 주로 발생한다.

아티스트가 팬에게 폭언을 들은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한 팬이 대면 팬 사인회에서 아이돌 그룹 엔믹스의 멤버 설윤이 자신의 카메라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였고, 결국 설윤이 현장에서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다.¹⁹⁾ 이는 대면 팬 사인회에서 아티스트와 팬이 1:1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로, 아티스트와 팬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 나머지 팬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고 아티스트가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느낀 실망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티스트에게 그대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애정표현 요구에 거부하는 한 아이돌 멤버를 상대로 내가 너한테 돈을 이렇게 쓰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해주느냐고 하거나, 심지어는 여자도 때릴 수 있다는 폭언을 한 팬도 있었다고 한다.²⁰⁾ 해당 사례 역시 앞서 언급한 사례와 동일한 이유가 원인이 되어 폭언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아티스트가 팬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면 팬 사인회 현장에서 한 팬이 아이돌 그룹 러블리즈 멤버 이미주에게 다리를 올려보라고 소리쳤고, 그 발언에 멤버들은 당황하며 표정이 굳었으나 해당 팬이 계속해서 특정 멤버에게 다리를 올려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성희롱을 한 일이 있었다.²¹⁾ 또한 아티스트와 팬이 1:1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유료 채팅 서비스인 버블에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한 멤버가 너무 덤다고 하자 더우면 벗으라는 메시지, 벗고 나서 셀카를 보내달라는 메시지,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며 멤버를 성희롱한 팬도 존재했다.²²⁾

사실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특성 상 악플과 성희롱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인터넷 영상 댓글이나 인터넷 기사 댓글 및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연예인, 특히 K-POP 아티스트에 대한 악플과 성희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만큼 이러한 사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팬덤 활동에서의 폭언과 성희롱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아티스트가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본인에게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대면 팬 사인회나 라이브 방송, 버블 등 아티스트가 원하지 않아도 직접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그만큼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클 것이며, 아티스트 뿐 아니라 다른 팬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4. K-POP 팬덤의 인권침해 사례

(1) 경호원의 폭행

팬덤 활동, 그 중에서도 팬덤이 아티스트를 직접 보러 가는 활동에서 수많은 팬들이 있는

19) 선미경(2023. 12. 10.), 「몰카·폭언에 휴기 난동..태연→설윤 올린 무개념 팬심 [Oh!쎌 이슈]」, osen, <http://www.osen.co.kr/article/G1112238349> (2023. 12. 14.).

20) 정지원(2018. 5. 6.), 「[Oh!쎌 초점] “난 여자도 때려” 아이돌 상대로 폭언+협박...그릇된 팬心」, osen, <http://www.osen.co.kr/article/G1110895818> (2023. 12. 14.).

21) 최지원(2018. 12. 27.), 「러블리즈, 법적대응 부른 ‘팬사인회 성희롱 사건’ 보니...“본대를 보여야”」, 매일경제,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8/12/805496/> (2023. 12. 14.).

22) 송오정(2020. 6. 19.), 「“야한 사진 올려줄거야?” 레드벨벳, SM 커뮤니티 앱 ‘버블’ 악용한 성희롱 피해 논란」, 톱스타뉴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8871> (2023. 12. 14.).

공간에서는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혼잡한 상황에서 아티스트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자 바로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팬들도 몇몇 존재하는데, 경호원은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팬을 제지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제지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 팬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존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공항에서 아이돌 그룹 NCT DREAM의 입국을 기다리던 팬이 경호원에게 강하게 밀쳐져 녹골이 골절되어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으며, 그 이전에도 멀리서 걷는 팬을 갑자기 강하게 밀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²³⁾ 또 다른 사례로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이 입국할 때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이 팬들을 폭력적으로 내쳤으며, 팬을 내던지는 수준의 과도한 물리적 힘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으며, 실제로 한 공항 관계자가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한 바 있다.²⁴⁾ 이렇듯 경호원이 질서를 유지하고 동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과잉경호를 하며 팬에게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고 폭행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은 단순한 아티스트 보호가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폭행 뿐 아니라 반말 섞인 폭언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팬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 마치 분노를 표출하듯 경호라는 명목으로 팬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야 한다.

(2) 보안 명목의 성추행

위에서 언급한 폭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추행 또한 오프라인 팬덤 활동, 특히 팬덤이 아티스트를 직접 보러 가는 활동에서 발생한다. 공연이나 대면 팬 사인회의 경우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보안을 위해 촬영이나 녹음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팬의 신체검사를 행했을 때 팬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돌 그룹 애틀의 대면 팬 사인회에서 팬들이 녹음을 위한 전자기기를 옷 안에 숨겼을 것이라고 의심해 이를 검사 후 수거하기 위해 직원들이 팬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옷 위로 만지는 것뿐 아니라 속옷 안쪽까지 만지며 수치감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²⁵⁾ 또한 아이돌 그룹 EXO의 공연을 앞두고 카메라가 있는지 검사하겠다고 직원들이 팬의 가슴을 만져보겠다고 말해 수치감을 느낀 해당 팬이 항의했으나 팬덤 연령층이 젊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²⁶⁾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팬이 촬영이나 녹음을 위해 전자기기를 숨겨서 반입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시작한 성추행이라는 점이다. 확신도 아닌 의심 하나로 팬에게 성추행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이며, 애초에 신체검사가 꼭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촬영과 녹음을 금지하는 것이 팬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팬 사인회의 경우이다. 팬 사인회는 공연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추첨해 진행하는데, 성추행을 당해 이를 공론화하고 고소하려 해도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면 앞으로의 팬덤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23) 서진주(2023. 5. 23.), 「“묻지마 폭행 수준”… 과잉 대응한 男아이돌 경호원, 결국 檢 송치」, 머니s,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52315210089558> (2023. 12. 15.).

24) 이선명(2022. 5. 17.), 「[단독]엔하이픈 관계자, 여성팬 폭행논란…‘과잉경호’ 역풍」, 스포츠경향, https://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2205171044003&sec_id=540101 (2023. 12. 15.).

25) 조연경(2023. 7. 10.), 「애틀 팬사인회 ‘속옷 검사 성추행’ 논란 “불쾌감 드러 죄송”」, jtbc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4305 (2023. 12. 15.).

26) 임효진(2016. 4. 21.), 「엑소 공연장 경호원, 여성팬 과잉 몸수색 논란… 한두번이 아니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1500124> (2023. 12. 15.).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팬들은 성추행을 당해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앞으로의 팬덤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침묵해야 하는 상황이 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²⁷⁾ 그렇기에 팬이 피해사실을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트 측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침해 또한 오프라인 팬덤 활동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는 암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에 앞서 티켓 수령 절차 중 신원을 확인할 때 발생하는데, 본인확인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고지 없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거부할 시 입장을 허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로 한 팬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콘서트 입장 절차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사진과 닮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집 주소를 말할 것을 요구당했고, 계속 압박당하다 결국 입장을 거절당했으며 심지어는 금융 인증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²⁸⁾ 또한 다른 공연에 방문한 한 팬은 티켓을 수령받을 때 사전에 고지된 준비물인 예매 내역서와 청소년증을 제시하였으나 직원이 추가로 주민번호와 집 주소를 물어봤고, 이에 답하자 팬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SNS, 카카오톡, 전화번호부를 훑어보며 설정해둔 이름이 본명과 다른데 양도 아니냐고 물아가거나 심지어는 본인 확인의 명목으로 팬의 핸드폰 사진첩에서 사진들을 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²⁹⁾ 이처럼 사전에 입장 조건으로 예매내역과 신분증 제시만을 고지하였으나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압박하며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팬들은 본인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공연에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모두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앞서 말한 보안 명목의 성추행의 경우와 같이, 암표 거래를 방지하는 것이 그 절차에서 팬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를 지녔는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5. 개선 방안

(1) 아티스트 보호 방안

앞서 살펴본 아티스트의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로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 폭언 및 성희롱의 경우가 있었다. 이 두 경우 모두 아티스트와 팬덤의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팬들은 아티스트와의 1:1 유료 소통 서비스인 ‘버블’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친밀환상을 느끼게 되며, 아티스트에 대한 사적 정보를 얻으며 친밀한 사이라는 감각을 느낀다고 한다.³⁰⁾ 하지만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팬도 존재할 것이다. 또한 거리감이 좁혀졌다는 이유로 모든 팬이 아티스트의 인권을 침

27) @yawnox(2023. 7. 8.), 제목없음, 트위터(X),

<https://x.com/yawnox/status/1677671544791908352?s=61> (2023. 12. 16.).

28) 장서윤(2023. 11. 12.), 「임영웅 콘서트 친질에 깜짝...‘아이돌 팬’ 묵혔던 공분 터졌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536> (2023. 12. 15.).

29) 서용원(2018. 10. 8.), 「“‘본인확인’한다면서 SNS, 카톡, 사진첩 구경” 피해 호소하는 NCT 드림쇼 관람객들»,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73389> (2023. 12. 15.).

30) 이나은(2022), 「친밀환상의 작동 방식: 팬플랫폼 ‘버블’ 이용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95쪽.

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적합한 대안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거리감 사이, 그 내부에 필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아티스트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기능을 유료 채팅 어플의 대화창, 라이브 방송 어플의 댓글창에 삽입해 수준 높은 필터링을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유료 채팅 어플인 버블에는 자체 금칙어 필터링 기능이 존재하지만, 금칙어에 걸리지 않는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는 필터링되지 않는다.³¹⁾ 즉 단어 단위의 텍스트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욕설이 들어가지 않았으나 맥락상 아티스트를 모욕하고 희롱하는 문장은 필터링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챗지피티같은 인공지능 기능을 삽입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인공지능의 판단과 시스템 내 메시지 데이터의 반복학습을 통해 금칙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호한 수준의 모욕적인 문장을 필터링하고 이를 통해 아티스트를 폭언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팬덤 활동에서 아티스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거나 팬들 사이에서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호원 또는 직원이 필터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만약 대면 팬 사인회 등에서 팬이 아티스트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할 경우 그 즉시 옆에 있던 경호원이나 직원이 팬의 신원을 확인한 뒤 퇴장시켜야 한다. 그 후 바로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폭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티스트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다면 블랙리스트에 넣어 앞으로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를 당한 아티스트의 심리 치료를 소속사 측에서 지원하는 것 또한 사후 조치에 해당될 것이며, 현장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인권침해를 목격한 팬들의 정신적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팬들에게 고지하는 것 또한 사후 조치의 일종일 것이다.

(2) 팬덤 보호 방안

앞서 살펴 본 사례들 중 팬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는 폭행, 성추행, 개인정보 침해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오프라인 팬덤 활동 중 경호원 또는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사례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안은 팬덤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절차 순서대로 설명할 것이다.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팬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이슈화한다. 현재 팬덤 산업 내에서 수많은 팬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공론화되거나 이슈화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간다. 또한 성추행 사건처럼 심각한 문제가 기사화되었을 때 해당 기사의 댓글들은 오히려 피해를 당한 팬들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³²⁾ 이처럼 팬덤 인권침해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그 중 극소수가 이슈화 및 기사화가 되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오히려 2차 가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현 실태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밝히는 기사를 여럿 내고 또 보도하며 이슈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팬덤 인권침해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기대할

31) 강은경(2022. 1. 20.), 「'김연경과 개인 채팅을' K팝 넘어 스포츠계로 뻗는 '덕질 플랫폼'」, 비즈한국,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187> (2023. 12. 16.).

32) 윤기은(2023. 7. 10.), 「“퇴장 당할까 말도 못해”...팬 사인회 과도한 '속옷검사' 논란」,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32/0003235034> (2023. 12. 16.).

수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팬덤 산업의 분위기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전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어느 정도 이슈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인식 또한 개선된 상황에서는 소속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소속사 측에서는 팬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팬은 단순한 집단이 아닌 산업 내의 소비자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제4조에는 소비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포함된다.³³⁾ 따라서 앞서 말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된 인권 교육과 더불어, 팬들이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소속사가 앞장서서 사후 조치를 실행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팬들은 본인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말해봤자 바뀌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사후 조치에 관해서도 소속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조직 내부 및 SNS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건 관계자 및 당사자와의 사실 검증을 거친 뒤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공연에 참여한 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소속사가 팬덤 활동에서의 팬덤 인권침해에 강력히 반대하며 만약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지원하는 등 불건전한 팬덤 문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내는 등 입장을 밝히거나, 구제 목적으로 팬들의 피해사실을 모으는 사이트를 개설해 공개하는 등 팬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팬덤 활동의 종류는 크게 오프라인 팬덤 활동과 온라인 팬덤 활동으로 나뉘며, 이러한 팬덤 활동은 케이팝 산업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팬 개인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티스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는 사생활 자유의 침해, 폭언 및 성희롱이 있었으며 오프라인 팬덤 활동과 온라인 팬덤 활동 모두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아티스트와 팬덤의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 가까워서 발생한다는 원인이 공통적임을 파악하였다. 팬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는 경호원의 폭행, 보안 명목의 성추행, 개인정보 침해가 있었으며 모두 오프라인 팬덤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티스트 보호 방안으로는 대화창 및 댓글창에 인공지능 기능을 삽입하는 것과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팬덤 보호 방안으로는 인권침해 실태 이슈화, 사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소속사의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비가시화되는 아티스트와 팬덤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현재 케이팝 팬덤 문화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각 사례별로 분류한 뒤 공통점과 특징을 찾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티스트와 팬덤 보호 방안을 각각 제시하며 건강한 K-POP 문화로 나아

33) 「소비자기본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B9%84%EC%9E%90%EA%B8%B0%EB%B3%B8%EB%B2%95#undefined> (2023. 12. 16.).

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가 많지 않아 표본이 적다는 한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 더욱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지·박동숙(2004), 「온라인 팬덤: 접근성의 강화에 따른 팬들의 즐기기 방식」, 『미디어, 젠더 & 문화』, 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41~69쪽.
- 마크로밀엠브레인(2021), 「2021 팬덤 문화 및 BTS 정치사회적 영향력 관련 인식 조사」, 『리서치보고서』, (주)마크로밀엠브레인, 1~37쪽.
- 여수경·정미선(2019), 「방탄소년단 팬덤의 복합 영향력 분석을 통해 브랜드 활성화 방법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3,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95~307쪽.
- 이나은(2022), 「친밀환상의 작동 방식: 팬플랫폼 ‘버블’ 이용자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57~200쪽.
- 이장근 외 2명(2020), 「중국 여중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팬덤 활동의 매개 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27-특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70~193쪽.
- 정지은(2019), 「케이팝(K-POP)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9-3, 한국문화산업학회, 63~72쪽.
- Fiske, J.(1992),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 In Lewis, L. A.(eds),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London and N. Y.: Routledg, 이윤경 외 2명 (2022), 『콘텐츠산업 팬덤 기반 지형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인용.
- 이윤경 외 2명(2022), 『콘텐츠산업 팬덤 기반 지형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강경윤(2023. 11. 22.), 「라이즈 승환, 사생활 논란→활동 중단…SM 측, 오늘(22일) 고소장 제출」, sbs연예뉴스,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80319 (2023. 12. 14.).
- 강은경(2022. 1. 20.), 「‘김연경과 개인 채팅을’ K팝 넘어 스포츠계로 뺏는 ‘덕질 플랫폼」, 비즈한국,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187> (2023. 12. 16.).
- 김연우(2022. 7. 14.), 「돈 내고 소통하는 시대, 아이돌 ‘유료소통’ 앱 부작용 크다」, 시빅뉴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5> (2023. 12. 13.).
- 김현록(2023. 11. 27.), 「피 보는 지경까지…‘블래’ 넘은 ‘공포’의 사생 범죄 “경각심 최고조”[이슈S]」, 스포티비뉴스,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823> (2023. 12. 14.).
- 서용원(2018. 10. 8.), 「“본인확인”한다면서 SNS, 카톡, 사진첩 구경” 피해 호소하는 NCT 드림쇼 관람객들」,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73389> (2023. 12. 15.).
- 서진주(2023. 5. 23.), 「“문지마 폭행 수준”… 과잉 대응한 男아이돌 경호원, 결국 檢 송치」, 머니s,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52315210089558> (2023. 12. 15.).
- 선미경(2023. 12. 10.), 「몰카·폭언에 흥기 난동..태연→설윤 올린 무개념 팬심 [Oh!쎈 이슈]」, osen, <http://www.osen.co.kr/article/G1112238349> (2023. 12. 14.).
- 송오정(2020. 6. 19.), 「“야한 사진 올려줄거야?” 레드벨벳, SM 커뮤니티 앱 ‘버블’ 악용한 성희롱 피해 논란」, 톱스타뉴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8871> (2023. 12. 14.).
- 여동준(2023. 11. 17.), 「경찰, BTS 뷔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1117_0002524939 (2023. 12. 14.).

- 윤기은(2023. 7. 10.), 「“퇴장 당할까 말도 못해”…팬 사인회 과도한 ‘속옷검사’ 논란»,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32/0003235034> (2023. 12. 16.).
- 이선명(2023. 5. 17.), 「[단독]엔하이픈 관계자, 여성팬 폭행논란…‘과잉경호’ 역풍», 스포츠경향, https://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art_id=202205171044003&sec_id=540101 (2023. 12. 15.).
- 이소담(2019. 8. 24.), 「키스 사진 유포된 ★들..지나친 팬심? 사생활 침해는 범죄입니다(종합)[Oh!쎈 이슈]», osen, <http://www.osen.co.kr/article/G1111211078> (2023. 12. 14.).
- 임효진(2016. 4. 21.), 「엑소 공연장 경호원, 여성팬 과잉 몸수색 논란… 한두번이 아니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21500124> (2023. 12. 15.).
- 장서운(2023. 11. 12.), 「임영웅 콘서트 친절에 깜짝…‘아이돌 팬’ 목혔던 공분 터졌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536> (2023. 12. 15.).
- 정지원(2018. 5. 6.), 「[Oh!쎈 초점] “난 여자도 때려” 아이돌 상대로 폭언+협박…그릇된 팬심», osen, <http://www.osen.co.kr/article/G1110895818> (2023. 12. 14.).
- 조연경(2023. 7. 10.), 「엔팀 팬사인회 ‘속옷 검사 성추행’ 논란 “불쾌감 드러 죄송”», jtbc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4305 (2023. 12. 15.).
- 최지원(2018. 12. 27.), 「러블리즈, 법적대응 부른 ‘팬사인회 성희롱 사건’ 보니…“본때를 보여야”», 매일경제,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8/12/805496/> (2023. 12. 14.).
- Mnet K-POP(2023. 4. 20.), <[최종회] ‘우리가 여깁잖아’ 연습생들을 위한 글로벌 깜짝 선물 등장?! | Mnet 230420 방송 [EN/JP]>, YouTube Mnet K-POP 채널, <https://youtu.be/743Wg5RQJKc?si=LgHCB4sEviqXUcS8> (2023. 12. 13.).
- @yawnox(2023. 7. 8.), 제목없음, 트위터(X), <https://x.com/yawnox/status/1677671544791908352?s=61> (2023. 12. 16.).
-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undefined> (2023. 12. 14.).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C%9D%B8%EA%B6%8C%EC%9C%84%EC%9B%90%ED%9A%8C%EB%B2%95#undefined> (2023. 12. 14.).
-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undefined> (2023. 12. 14.).
-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B%B9%84%EC%9E%90%EA%B8%B0%EB%B3%B8%EB%B2%95#undefined> (2023. 12. 16.).

